

오룡지구 택지개발...‘배임혐의’ 무죄

전남도 무리한 수사의뢰 ‘논란’

법원 “사익 없고 특혜 아냐” 전남개발공 前사장 “道 상대 소송”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외부용역 발주를 법정 다름으로 비화시킨 전남도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상섭)는 7일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전모씨와 전 개발본부장 또 다른 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에 감리를 맡긴 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경영진으로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 위탁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에 감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도 택지분양 과정에서 원가에 포함,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에

이번 판결은 공직사회에서 일반화된 외부 용역 발주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도가 지방공기업의 경제성만을 따져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공공복리를 도외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한 공무원은 “시중에 떠도는 전남개발공사 측과 특정업체 간 유착 의혹 소문을 근거로 선불리 수사의뢰한 전남도의 무책임 행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12월 전남개발공사 감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당하게 책임 감리 용역을 맡겨 40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간부가 전남개발공사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 감리가 가능했는데도 외부 책임감리를 발주해 4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도 전 사장은 “전남도가 마치 범법자 취급을 했다”며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전남도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의 신나는 방학

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쌀쌀한 날씨속에 7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8일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3cm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과 휴일인 9~10일에는

광주 시내버스, 혈세지원 느는데 서비스는 ‘후진’

준공영제 이후 수백억 투입...지난해 불편신고 803건

‘해마다 임금은 오르는데...’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 시내버스에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해마다 임금 인

상을 위해 ‘파업카드’까지 꺼내들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광주 시내버스 불편신고는 지난 2011년 489건, 2012년 439건, 2013년 625건, 2014년

106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80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승강장 통과 380건 ▲승하차 거부 195건 ▲불친절 132건 ▲부당요금 12건 ▲배차시간 미준수 8건 ▲도중 하차 7건 ▲기타 69건 등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난폭운전, 급정거, 욕설 등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온 상황이

다. 또 광주시청 민원게시판에는 하루걸러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반면 광주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은 2013년 3.2%, 2014년 3.65%, 2015년 3.73% 등 해마다 오르면서 시민들의 혈세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운수업체에 대해 승객 친절 서비스 및 안전운행 재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6

날출 05:36

날짐 16:10

지방별 날씨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하리고 눈·비	-2/4	보성	구름많음	-2/4
목포	포	하리고 눈·비	0/4	순천	구름많음	0/5
여수	구름많음	1/5	영광	하리고 눈·비	-1/4	
나주	하리고 눈·비	-2/5	진도	구름많음	1/6	
완도	구름많음	1/5	전주	하리고 눈·비	-3/3	
구례	하리고 눈·비	-3/4	군산	하리고 눈·비	-2/2	
강진	구름많음	0/5	남원	하리고 눈·비	-4/2	
해남	구름많음	0/5	축산도	하리고 눈·비	2/5	
장성	하리고 눈·비	-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부	앞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16	05:55
	13:12	18:43
여수	08:19	01:30
	20:10	14:23

◇주간 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2/6	-2/7	-3/3	-4/3	-3/4	-1/4	-3/3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소방관, 출동 절반이 별집 제거·동물 구조

전남, 하루 평균 구조 70건·구급 211건...업무 부담 ↑

전남소방·구급대원들이 별집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가장 많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조활동의 3분의 1에 달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주민이 늘면서 동물구조도 큰 폭으로 늘었다.

7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 2만5486건의 사고현장에서 5503명을 구조했고, 7만6891건의 구급 출동으로 8156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전년에 비해 구조 건수는 3675건(17%), 구급은 6096건(8.6%) 각각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구조는 69.8건(전년 59.8건), 구급은 210.6건(전년 193.9건)으로 소방·구급대

원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 구조 유형별로는 별집 제거가 8140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4365건, 17.1%), 동물 구조(3452건, 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급 유형별 이송 인원은 질병이 4만3824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고 부상 1만9453명(24.2%), 교통사고 1만2404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1년 동안 2646건이 발생해 112명(사망 11명)의 인명피해와 195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학숙, 2016 입학생 131명 모집

도립 전남학숙이 광주 및 인접 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에 다니는 전남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입학생 모집에 나선다. 올해 모집 인원은 131명이며 8일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입사 원서는 전남학숙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남학숙은 월 11만 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숙식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광주대·조선대·광주교대·전남대를 경유하는 무료 통학버스를 1일 10회 운행한다. 또 입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곤란하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